

태국 콘텐츠 산업동향

태국 야오이 콘텐츠의 특징 및 시사점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태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THAILAND

2022 년 06 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 이슈	▶ 태국 야오이 콘텐츠의 특징 및 시사점 ▶ 태국의 야오이 문화/ 태국 Y 시리즈 주요 흥행작/ 태국 Y 콘텐츠의 특징/ 정리 및 시사점	▶ 태국 야오이 ▶ Y 시리즈 ▶ 팬픽션 ▶ 트랜스미디어 ▶ Y-경제 ▶ 소프트파워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태국 마케터

배포 | 2022.08.12



심층 이슈

I. 태국 야오이 콘텐츠의 특징 및 시사점

순서

1. 태국의 야오이 문화
2. 태국 Y 시리즈 주요 흥행작
3. 태국 Y 콘텐츠의 특징
4. 정리 및 시사점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1 태국의 야오이 문화



1. 태국 야오이의 정의

✔ 일본 야오이와의 차이점

- 야오이(Yaoi)는 1970년대 일본 만화의 한 장르로 발생했으며, ‘야마나시(やまなし)’, ‘오치나시(おちなし)’, ‘이미나시(いみなし)’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갈등·결말·의미가 없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주로 외설적으로 다룬 장르를 말함. 초기에는 이 같은 장르를 남성 간 로맨스물을 다루던 잡지 이름을 따서 ‘주네(June)’라고도 불렀으며, 동인지(同人誌)를 일컫는 말로 ‘야오이’가 사용되기도 했음.¹⁾ 한편 태국의 야오이는 인터넷 보급 이후 아이돌 팬픽션의 일종으로 시작된 웹 게시판 소설에서 발생했음.
-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야오이를 ‘보이즈 러브(Boys Love)’ 또는 BL 이라 부르는 경향이 커짐. 태국에서도 남성 간의 로맨스물을 ‘보이즈 러브(BL)’, 또는 Yaoi의 Y를 따서 대체로 ‘Y Series’²⁾라고 부르며, 이러한 용어들을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음.
- 태국의 야오이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망가(만화)를 시초로 발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성 간 동성애를 다룬 장르를 말함. 그러나 일본의 야오이는 외설적인 하위문화였던 반면 태국에서는 외설적이지 않은 학원물 야오이 콘텐츠가 대세를 이루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선정성은 낮고 대중성은 높은 주류문화로 발전했음. 이렇게 성장한 태국 Y 시리즈는 야오이 문화의 본국인

1) <https://ko.wikipedia.org/wiki/%EC%95%BC%EC%98%A4%EC%9D%B4>

2) 태국에서는 연속극, 즉 드라마를 주로 ‘시리즈’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K-Series(씨리까울리)’라고 부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BL 드라마’라고 하는 작품을 태국에서는 주로 ‘Y-Series(씨리 와이)’라고 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Y 시리즈, Y 콘텐츠, Y 장르, Y 문화 등으로 주로 표기했음.

일본에 전파되어 팬들에게 신선함과 설렘으로 다가가 일본 내 붐을 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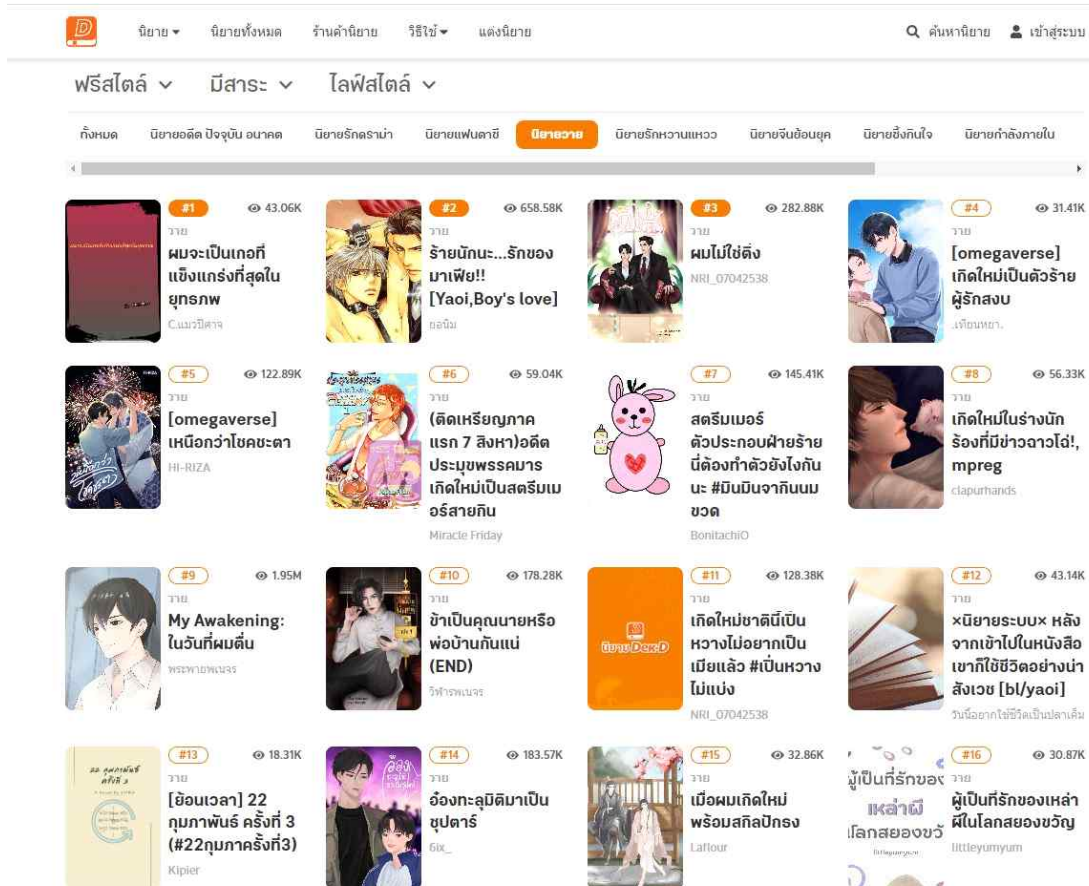
✔ 퀴어(queer) 콘텐츠와의 차이점

- 퀴어 콘텐츠와 Y 콘텐츠는 모두 동성애를 그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Y 시리즈(드라마)는 이성애자인 여성 작가가 쓴 남성 간 로맨스물로, 여성향 이성애적 로맨스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플롯임. 주 소비층도 이성애를 지향하는 여성 소비층이기 때문에 퀴어 장르로 보기는 어려움.
- 퀴어물에 등장하는 남성은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룰 때 여성성이 부각되는 경우도 많은 반면, Y 장르의 남성들은 대부분 남성성이 두드러짐.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 소비층이 여성 팬이기 때문에 이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현상은 아이돌 소비문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내용 면에서도 퀴어물은 동성애자들의 결혼문제, 일상 속 어려움, 법적 지위, 그들을 향한 편견 등 성 소수자가 실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음. 반면 Y 콘텐츠는 로맨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머리 아픈 현실 문제는 배제하거나 가볍게 얹은 수준에서 다루고 넘어가는 편임. 따라서 로맨스와 해피엔딩에 중점을 두는 이 같은 야오이 또는 BL 장르는 판타지에 가깝다고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퀴어와 Y 장르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둘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있음. 따라서 이는 학계, 작가, 팬덤 등의 정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2. 태국 Y 콘텐츠의 발생과 흐름

✔ 팬픽션 웹소설에서 Y 소설 탄생

- 일본에서 들어온 야오이 만화와 소설은 음지에서 소수가 향유하는 외설적인 문화였음. 이후 1990년대 말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웹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창작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남성 간의 로맨스를 다룬 야오이 소설도 생겨남.
-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인터넷 소설을 게시하면서 태국의 야오이 소설이 만들어짐. 이후 Dek-D.com 이나 Joylada, ReadAwrite 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소설 생산과 소비가 매우 활발히 일어나게 됨. 현재 이들 웹사이트에는 Y 장르가 주요 장르로 상단에 분류되어 있지만 약 20년 전에는 소수가 만들어서 향유하는 하위문화였음.



[그림 1] Dek-D.com의 Y소설 부분 첫 페이지 상단(2022년 7월 30일 검색)

✓ 태국 Y 영화의 시초, 〈Love of Siam〉(2007)³⁾

- 동성애를 다룬 콘텐츠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첫 작품으로 많은 이들이 영화 〈Love of Siam〉(2007)을 꼽음.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똥’(오 마리오 분)과 ‘미우’(핏 윗위싯 분)는 ‘똥’의 전학으로 헤어지게 되었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재회하면서 우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됨. 그러나 엄마의 만류와 사회적 분위기로 그들은 친구로 남게 되는 스토리임. 비록 현실적 문제인 성적 취향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이를 무겁게 다루지 않고, 두 주인공의 설레는 로맨스를 아름답게 그려내 귀여워영화이면서 Y 영화의 시초라 불림.
- 극 중에서 ‘미우’는 인기 있는 청소년 음악밴드 보컬로 나오는데 이들의 OST 또한 큰 인기를 끌었음.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똥’은 ‘미우’에게 “우리가 연인으로 사귀지 않는다는 게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냐”라고 고백함. 이는 당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며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태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킴.

3) 태국어 원제는 〈락헝싸얌(Rak Haeng Sayam)〉으로, 2000년대 중반 두 소년 간의 우정을 넘어선 사랑은 태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영화.

✔ 터닝 포인트, 채널 9의 <Love Sick The Series>(2014) 방영

- 2000년대 이후 온라인상에서 청소년과 아마추어 작가들이 쓴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웹소설을 책으로 출판하는 트렌드가 생김. 이는 이성애와 동성애 로맨스소설을 모두 포함하는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출판된 Y소설의 수가 높은 편은 아니었음.
- 그러던 중 Dek-D.com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된 남고의 남학생 간 로맨스와 청춘을 다룬 Indrytimes 작가의 웹소설 <Love Sick>이 백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음. 스타헌터엔터테인먼트(Star Hunter Entertainment)사는 이를 TV 드라마로 각색해 2014년 공영방송 최초로 Y시리즈를 선보이게 되었으며, 2018년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 1이 방영됨.⁴⁾
- <Love Sick The Series>의 흥행 이후 본격적으로 웹소설이 TV 드라마로 영상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태국의 Y문학을 연구해온 까셋삿대학교의 닛타나이 브라산남 교수는 2014년 <Love Sick The Series>를 태국 Y장르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작품이라고 지적했음.⁵⁾



[그림 2] <Love Sick The Series>



[그림 3] <Love Sick The Series 2>

✔ 음지에서 양지로, 태국을 넘어 세계로

- 이러한 인기 속에 태국의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GMM은 Y시리즈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방영된 <SOTUS The Series>의 두 신인 주연배우, 크리스-싱포를 스타덤에 오르게 하며 본격적인 Y시리즈 시대를 활짝 열었음.
- 이후 GMM사의 콘텐츠 프로덕션 팀장인 뇨파낫 차이위몬의 감독 하에 많은 히트작을

4) 위키피디아 <Love Sick The Series> 영어 및 태국어 버전 참고

5) <https://www.bbc.com/thai/features-52240707>

탄생시켰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뮤-걸프 주연의 〈TharnType The Series〉(2019), 오프-건 주연의 〈Theory of Love〉(2019), 떼-뉴 주연의 〈Dark Blue Kiss〉(2019), 브라이트-원 주연의 〈2gether The Series〉(2020), 후속작 〈Still 2gether〉(2020), 얼스-믹스 주연의 〈A Tale of Thousand Stars〉(2021) 등이 있음.

- 특히 2020년에는 Y 시리즈들이 큰 화제를 모으며 전성시대를 이루었으며, GMM의 〈2gether The Series〉와 주연배우 브라이트-원, Studio Yabi Sabi사의 〈Love Mechanics〉와 주연배우 인-워는 가장 트렌디한 스타로 떠오름. 이와 더불어 앞서 〈Love Sick The Series〉를 제작했던 스타헌터엔터테인먼트사의 차기작 〈Gen Y The Series〉 또한 채널 3에서 방영되며 Y 시리즈의 전성시대를 이어감.
- 각종 언론사에서는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Y 콘텐츠 시장에 주목하였고, 해외에서도 태국 Y 시리즈 팬덤이 커지자 Y 콘텐츠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태국의 소프트파워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짐. 마침 대외적으로 이 시기는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태국 내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게 됨.

〈Yin-War 커플 뒤, Y 콘텐츠 시장엔 무엇이 있나?〉

- LINE TV의 Y 시리즈 조회수 6억 뷰 돌파
- 2020년 Y 시리즈 시청자수 328% 상승
- 최근 2년간 Y 시리즈 제작 40편, 아시아 최대치
-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는 Y 소설 1,533편
- Y 장르 전문 출판사 75곳

[출처: 고통텝투라깃 편집, 2020년 6월 13일 기사발췌(<https://www.bangkokbiznews.com/lifestyle/884794>)

- 태국 Y 시리즈의 흐름을 정리하면, 초기의 Y 시리즈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소년들의 학원물 로맨스가 주를 이루며 선정성이 낮아 새로운 로맨스 장르로 대중화됨. 이러한 초기 작품들은 일상적인 가벼운 주제와 소소한 에피소드를 다루지만, 두 주연배우의 케미가 두드러져 시청자에게 설렘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징을 보였음. 나아가 주연 배우들은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며 태국 아이돌 스타가 대거 탄생함.
- 최근 Y 시리즈는 점차 세부 장르가 추리, 공포, 스릴러, 범죄, 액션, 의학 드라마 등으로 확대되면서 배경도 학교가 아닌 회사, 농촌, 병원, 특정 조직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스토리의 전개와 인물관계가 복잡해지고,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짙은 작품도 등장하고 있음. 2023년에는 Be On Cloud사가 기획한 전통시대 왕실의 약사와 무용수 간의 로맨스를 다룬 시대극 Y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어 Y 콘텐츠의 저변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태국 Y 시리즈 주요 흥행작



1. <SOTUS The Series>(2016)

✔ SOTUS 와 태국의 신입생 군기 문화

- 소타스(SOTUS)는 ‘Seniority(순위)’, ‘Order(질서)’, ‘Tradition(전통)’, ‘Unity(단결)’, ‘Spirit(정신)’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로, 주로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의 권위를 부각하고 동급생 간의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 행해지는 단체 기합 문화임.



|그림 4| 기합 장면 |출처: <SOTUS The Series> 2화 중 캡처

- Y 시리즈 SOTUS 는 BitterSweet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GMM TV 에서 영상화한 것으로, 공과대학 3 학년 선배인 ‘아탓’(크릿 분)과 신입생 ‘깡뽀’(싱포 분)의 갈등이 서서히 이해와 사랑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그린 풋풋한 캠퍼스 로맨스 드라마임. 태국 특유의 대학 군기 문화와 연결해 보여줌으로써 해외 팬들에게는 태국 대학문화의 다소 충격적인 부분과 더불어 이면의 훈훈함, 캠퍼스 문화를 알아가는 신선한 재미를 준 작품임.
- 특히 서열문화가 발달한 동북아 권에서 큰 히트를 치며 한국, 일본 등에서 팬 미팅을 개최하기도 했음. 일본에서는 이 작품을 일본 만화책으로 제작해 발간했음. 크릿-싱포는 이 작품으로 2017 년과 2018 년 LINE TV Awards, KAZZ Awards 등 각종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과 배우상을 휩쓸었으며, 큰 인기에 힘입어 시즌 2 와 영화까지 연달아 제작되었음.



[그림 5] 소설 <SOTUS>



[그림 6] 드라마 <SOTUS> 시즌2

2. <2gether The Series>(2020), <Still 2gether>(2020)

✔ #칸꾸(#khanku) 열풍

- 2014 년 <Love Sick>을 기점으로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한 태국 Y 시리즈는 2020 년 브라이트 와치라윳과 윈 메타윈 주연의 드라마 <2gether The Series>에서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음. 당시 브라이트(‘사라윳’ 역)는 데뷔한 지 7 년 정도 된 무명배우였으며 윈(‘타인’ 역)은 이 드라마로 데뷔를 했는데, 드라마 방영 한 달여 만에 브라이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40 만 명으로, 윈의 팔로워는 150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⁶⁾ 일약 스타가 되었음.
- 한국에서는 같은 해 넷플릭스에서 <보이프렌즈>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으며, 이 작품으로 태국 드라마에 입문하는 한국인이 가시적으로 생겨남. <보이프렌즈>를 리뷰한 대부분의 블로그에서는 “브라이트-윈의 케미가 다했다”라고 할 정도로 스토리보다는 두 배우의 외모와 케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하지만 두 배우 간의 케미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풋풋한 사랑을 소재로 다뤄 누구나 쉽게 공감 가능한 점과 태국의 유명 듀오 밴드 Scrubb 의 음악은 드라마의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 작용했음. 또한 영어 자막 재생이 가능한 영상을 TV 와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하면서 외국인의 시청이 가능하게 한 것도 흥행요인으로 꼽힘.
- <2gether The Series>의 태국 원제는 ‘프리 라오 쿠 칸’⁷⁾으로 여기서 ‘쿠칸’은 ‘커플’을 의미하는데, 청소년층의 대표적인 언어유희 문화로 ‘쿠칸’의 자모음을 ‘칸꾸’로 바꿔 부르는 것이 대유행했음. 종종 드라마가 방영될 때 ‘#칸꾸’는 실시간 트렌드 1 위에 오르기도 했음.

6) <https://www.bbc.com/thai/features-52240707>

7) ‘프리 라오 쿠칸’은 번역하면 ‘우리는 연인이니까’라는 의미임

✔ #쿠간 한정판과 세계적인 팬덤

-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브라이트-윈은 수많은 광고에 출연하며 한정판 상품도 유행시킴. 한국에서도 이들의 팬덤이 형성되어 사라왓-타인 굿즈 제작과 대형 광고 설치 등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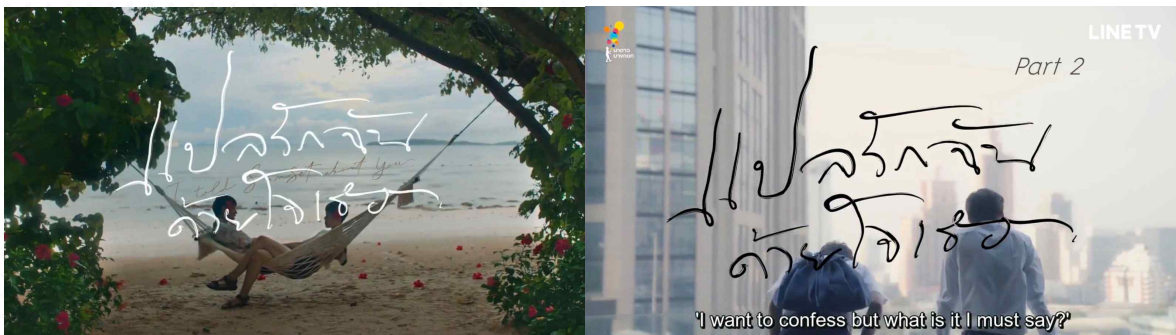


[그림 7] 던킨도너츠 #쿠간 도넛과 텀블러 [그림 8] 건대입구역에 설치된 윈의 생일축하광고

3. <I Told Sunset About You>(2020), <I Promised You to the Moon>(2021)

✔ BKPP Project

- Nadao Bangkok⁸⁾은 2019년 방영했던 드라마 <My Ambulance>에서 조연으로 진한 브로맨스 케미를 선보였던 빌킨과 피피를 BKPP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이들을 연인관계로 설정해 주연으로 세운 드라마 <I Told Sunset About You>(2020)를 제작함.
- 첫 시리즈인 <I Told Sunset About You>는 푸켓을 배경으로 두 소년의 진한 우정·사랑으로 겪게 되는 내면의 혼란과 수용과정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작품임. 나르벳 쿠노 감독의 완성도 높은 연출과 아름다운 해변, 실제로 절친인 두 배우의 케미, 주변 인물들의 따뜻한 시선과 메시지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며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석권했음. 서울드라마어워즈 2021 에도 초청되었으며, 피피 크릿은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함.



[그림 9] <I Told Sunset About You>

[그림 10] <I Promised You to the Moon>

8) Nadao Bangkok(2009~2022)은 영화, 드라마, 음반을 주로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로, 2022년 5월 자금난으로 폐업했음

✔ 새로운 담론의 형성

- 시즌 2 에서 ‘떼’(빌킨 분)는 배우의 꿈을 접은 ‘오에우’(피피 분)와 갈등하며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선배 ‘짜이’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오에우’는 상처를 받고 ‘떼’와 헤어짐. 이후 ‘떼’는 배우가 되고 함께 활동하는 여성 스타와 사귀지만 결국 ‘떼’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오에우’ 뿐인 것을 깨닫게 되고 헤어짐. 이를 통해 ‘떼’가 추구하는 사랑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저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보여줌.
- 이 같은 스토리를 통해 Y 콘텐츠는 남성 간의 로맨스로 표현되지만, 점차 젠더의 경계를 허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태국의 Y 장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단지 남성 간의 사랑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와 상관없이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해 그리며, 그런 사랑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함. 이는 기존 사회에서 통용되던 ‘비정상적 사랑’ 프레임에 대항하는 새로운 담론임.

훈: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

네가 남자 손을 잡고 걷는다 해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난 상관없어. 내 동생이 남자를 좋아한대도. 난 괜찮다고.

...네 인생이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떼: 정말? 정말 누구든지 사랑해도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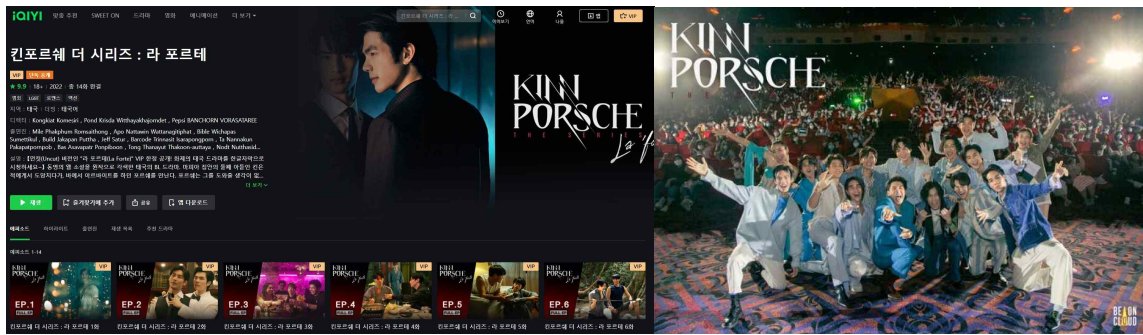
훈: 응. 넌 이미 누구든 사랑해도 돼.

[출처: <I Told Sunset About You> 4 화, ‘떼’와 ‘훈’의 대화중에서 발췌]

4. <KinnPorsche The Series>(2022)

✔ 2022 년 상반기 최고 화제작

- 2022 년 상반기 최고 화제작인 <KinnPorsche The Series>는 Be On Cloud 사가 제작한 Y 시리즈로 태국 마피아 보스와 보디가드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드라마임. 탄탄한 연출력, 자극적인 소재와 빠른 전개, 파격적인 러브신과 범죄 이야기는 초기 Y 시리즈에서 보기 어려웠던 소재를 다뤄 태국 Y 시리즈가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임.
- 이 작품 역시 두 주연배우인 마일과 아포의 케미와 연기력이 뛰어나며, 거칠고 남성적인 서사가 돋보임. 이는 기존의 Y 장르에서 섬세한 여성서사가 두드러지는 것과 대비되는 특징으로, Y 장르의 외연과 내연이 모두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11] <KinnPorsche The Series: La Forte>

[그림 12] <KinnPorsche The Series> 월드투어 2022 방콕

❖ <KinnPorsche The Series> 월드투어 2022 방콕 콘서트에서의 논란

- Y 시리즈 <KinnPorsche The Series>는 큰 인기로 힘입어 7월 24-25일에 방콕에서 콘서트를 개최함. 이는 월드투어의 시작으로 9월과 10월에는 서울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음.
- 방콕 콘서트에서는 다소 선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관람객의 연령 제한이 없는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이 관람하기 부적절한 연기를 펼쳐 비판을 받음.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결국 Y물은 성 소수자들의 판타지적인 이미지만을 취해 로맨스 소재로 이용하고, 이런 행사에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매우 불편하다”는 논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함.⁹⁾

3 태국 Y 콘텐츠의 특징



1. Y 시리즈 ‘쿠썬’ 문화 강화

❖ 남주(男主)들¹⁰⁾간의 케미가 큰 비중 차지

- ‘쿠썬’(imagined couple)은 드라마 속에서 케미가 좋은 주연배우 커플을 일컫는 말로 기본적으로 남-여 주연 커플을 의미함. 태국에서는 드라마 방영 이후 ‘쿠썬’이 함께 활동하는 경향이 있음. 나아가 인기 있는 ‘쿠썬’은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해 차기작에서도 계속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인 예로 뽀-벨라, 나뎃-야야 등이 있음.
- 태국의 Y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로맨스물이기 때문에 주연배우 간의 케미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쿠썬’은 Y 시리즈에서도 역시 중요한 흥행요인이 됨.

9) <https://www.dailynews.co.th/news/1285932/>

10) 태국 야오이 장르에서는 남주들을 ‘프라엑-나이엑’이라 부르며, 이는 ‘세메(공)-우케(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신인 ‘쿠핀’ 스타들의 탄생

- Y 시리즈의 주연은 기존의 특정 이미지가 없는 배우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체로 신인배우가 연기함. 이들은 잘생긴 얼굴과 근육질 몸매로 남성미를 발산하며 아이돌처럼 외모와 캐릭터가 중요한 인기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3| <뮤-겔프 쿠핀>

|그림 14| <인-워 쿠핀>

- Y 시리즈에는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여성 출연자의 비중이 매우 작음. 따라서 Y 시리즈의 주연 커플과 서브 커플은 마치 보이밴드를 연상케 하며, 이를 소비하는 팬들도 아이돌 문화의 주 소비층인 10 대~20 대 여성과 일치함. 따라서 태국 Y 시리즈의 ‘쿠핀’들은 아이돌 스타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쿠핀’으로 활동하며 세계관 구축

- 이러한 ‘쿠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Y 시리즈를 활발히 생산하고 있는 GMM은 <SOTUS The Series>(2016), <Theory of Love>(2019), <Dark Blue Kiss>(2019), <2gether The Series>(2020) 의 주연배우 8 명을 모아 음원을 제작했으며, 이들은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GMM사의 Y 시리즈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는 이들이 함께 음원을 발매하고 콘서트가 예정돼있는 정도이지만, 높은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작품에서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그림 15] GMM 대표 ‘쿠췌’ 8명의 ‘Law of Attraction’ 뮤직비디오

- BKPP 프로젝트 또한 대표작(〈I Told Sunset About You〉(2020), 〈I Promised You to the Moon〉(2021)) 이외에도 빌킨-피피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생산함. 단편영화 또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대표작의 연장선에서 이들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구성하고, 팬들에게 ‘쿠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도록 함.



[그림 16] 〈Shining In My Eyes〉(Nadao×Oppo)



[그림 17] 〈Last Twilight in Phuket〉(side story)

- 특히 Y 시리즈에서는 주연을 맡은 남-남 ‘쿠췌’ 이외에도 개성 있는 서브 ‘쿠췌’들의 활약도 돋보임. 〈KinnPorsche The Series〉(2022)에서는 주연 ‘쿠췌’(마일-아포) 이외에도 서브 ‘쿠췌’(바이블-빌드, 제프-바코드)의 인기도 상당했는데, 이들은 개별적으로 활약하면서 서브 ‘쿠췌’ 자신들의 세계를 독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전체 세계관도 함께 심화시킴. 이처럼 서브 ‘쿠췌’의 스토리는 개별적인 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후 스펀오프¹¹⁾ 작품으로의 확대 및 원천 스토리의 다양한 변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1) 스펀오프(spin-off)는 오리지널 영화, 드라마의 캐릭터나 설정에 기초해 동일한 세계관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을 말함



[그림 18] <KinnPorsche The Series>의 주연 '쿠피' 및 서브 '쿠피'들

2. 전 세계 BL장르 주도

✔ 야오이 문화의 본고장인 일본에 역수출

- 주목할 점은 태국산 Y 시리즈의 인기가 태국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임. 야오이 문화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새로운 태-일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 태국의 인기 Y 작품들이 일본어 번역본으로 쏟아져 나오고, 관련 캐릭터 굿즈샵도 생겨남. 주일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태국 드라마 페스티벌이나 팬 미팅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인기를 증명함. 나아가 일본어 번역본은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태국 Y 물의 파급력이 세계적으로 더욱 커지게 하는데 기여함.¹²⁾
-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젠더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기존 일본의 야오이가 선정적인데 반해 태국의 초기 야오이물은 러브신의 수위가 낮은 작품이 대세였으며 두 주연배우의 출중한 외모와 케미가 신선함을 주었기 때문에, 동성애에 다소 보수적인 동북아에서도 인기를 얻은 것으로 보임.
- 태국은 Y 시리즈를 활발히 제작 및 수출하는 국가로 엄격한 이슬람국가인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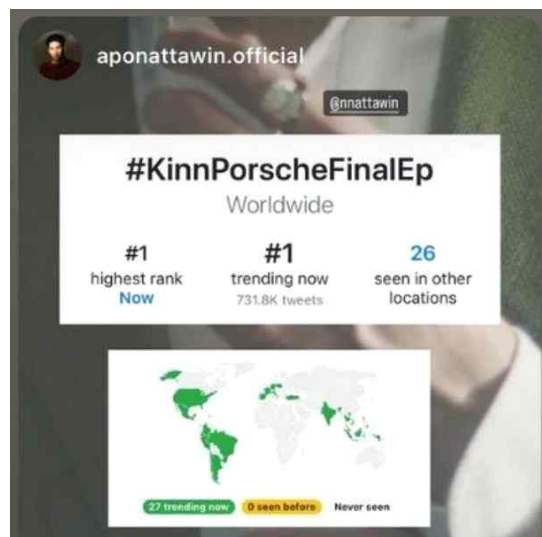
✔ 유럽 일부 국가와 남미에서도 인기

- 태국의 Y 시리즈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소셜미디어에서는 세계 각지의 팬들이 다양한 언어로 남긴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음.
- 태국의 Y 시리즈는 초기에는 가벼운 소재와 일상을 다룬 학원물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후에

12) Thai PBS 방영, <https://www.youtube.com/watch?v=sSHbLetPQ0o&t=1s>

추리, 스릴러, 액션 등 다양한 장르로 발전했으며, 러브신의 수위도 높아지면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KinnPorsche The Series>는 여러 동남아 국가들에서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유럽 일부 국가와 남미에서도 높은 순위를 점하며 태국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음. 이로써 태국의 Y 시리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태국의 Y 콘텐츠산업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9] <KinnPorsche>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3. 트랜스미디어를 통한 Y-Economy 구축

✔ 트랜스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재생산되는 Y 콘텐츠

-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의 Y 산업은 현재 이런 흐름에 가장 부합되며 고속 성장하는 분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태국 Y 콘텐츠는 주로 팬픽으로 시작된 웹소설이 웹툰으로 제작되거나 드라마로 영상화되고, 여러 ‘쿠썬’들의 음원 제작 또는 원작의 스핀오프 작품 파생 등 가장 두드러지게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음.



보유 중인 쿠키
쿠키 수를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투게더 더 시리즈(2gether The Series) [BL]

★★★★★ 9.7 | 관심 46 | 댓글 402 | 공유

연재종 | BL | 글 | 그림 | 출판사 대원씨아이(주) | 15세 이용가

태국 인기 BL 소설 <2gether> 원작 집툰!

X나 잘생긴 그놈이 내 남친이 된다면...?

대학에 입학한 태인은 예쁜 여자친구와의 평범하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꿈꾼다.
그런데 현실은 그린이라는 '남자의 집요한 애정공세'뿐!
그린은 태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오고 아무리 거절해도 포기할 줄 모른다.
어떻게든 그린을 떼어놓고 싶은 태인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힐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낸다.
그 방법은 바로 대학 최고의 인기남 '유수혁'과 사귀는 것!
스토커 같은 그린을 떼어내기 위해선 누가 봐도 X나 멋진 녀석과 사귀는 수밖에...
유수혁과 사귀기 위한 차태인의 고군분투 캠퍼스 연애담이 시작된다!

원작 : 소설 <2gether> JittRain

[그림 20] <투게더 더 시리즈> 한국 웹툰

✓ 팬덤(Y 소녀/싸우와이)의 적극적인 소비와 참여문화

- 태국에서 야오이 문화의 주 소비층인 젊은 여성을 Y 소녀(싸우와이)라고 칭함. LINE TV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국의 Y 소녀는 약 2 천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주로 LINE TV를 통해 Y 시리즈를 시청함. 아울러 Y 소녀의 유형을 분석하여 3 가지 단계 - New adopter(호감 갖는 단계), Core Watchers(즐거 보고 주변에도 소개), Fandom(열성적인 팬) - 로 제시함.¹³⁾
- 특히 마지막 유형인 '팬덤'의 경우 충성도가 높고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출연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며, 그가 광고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
- 대표적으로 배우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국내외 팬덤은 광고비를 모아 국내 및 해외 도시에서 대형 광고를 함. 특히 인기의 척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의 크리스, 싱포와 같은 Y 배우들의 광고는 태국 내에서도 뉴스화됨.



[그림 21] 뉴욕 타임스퀘어의 크리스 졸업축하 광고

13) <https://today.line.me/th/v2/article/EOMDev>

- 이러한 인기는 Y-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어 Y 배우들은 젊은 여성들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의 광고모델로 발탁되고, 광고 및 각종 이벤트에 프리젠티어로 참여함. 예를 들면 태국의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 ‘마마’는 자사의 프리미엄 라면인 Oriental Kitchen(OK) 라인의 주 소비층이 15~24 세 여성, 즉 Y 시리즈 주 소비층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자 ‘Fan base’ 마케팅전략을 바탕으로 GMM 소속의 Y 시리즈 인기 배우 6 명을 광고모델로 내세움.



[그림 22] GMM 소속 ‘쿠썬’들의 마마라면 광고

- 이뿐만 아니라 배우와 팬덤이 함께 각종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 선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참여문화를 꽃피우고 있음. Y 배우 중 대표적인 예는 브라이트 와치라윗의 경우로, 그는 한 프로그램에서 “팬들이 본인을 위해 대형 광고를 해 주는 것도 기쁘지만 돈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으며¹⁴⁾, 자신의 23 번째 생일에는 팬클럽과 함께 기부금을 마련하여 어린이재단, 의료재단, 동물보호재단 등 5 개 기관에 총 3 백만 바트(약 1 억 천만 원) 이상을 전달했음.



[그림 23] 브라이트와 팬덤의 기부관련 기사

14) ‘WOODY FM’ 브라이트-원 편, https://www.youtube.com/watch?v=Lxp6UC_J-HM&t=342s

4 정리 및 시사점



1. 새로운 장르의 탄생, 새로운 문화적 실천

✔ '그름'의 문제에서 '다름'의 문제로

- Y 장르는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여 비현실적 로맨스에 집중하게 만든 남성 간의 러브스토리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이러한 비현실적 로맨스를 통해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함. 그것은 '비정상적' 동성애를 '정상적' 이성애와 동일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랑이라는 본질 가치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인식하게 된 것임. 이는 '그릇된' 사랑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그저 '다른' 사랑으로 보도록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함.
- 지난 7 월에는 영화 <Love of Siam> 개봉 15 주년을 맞아 방콕 시암스퀘어에서 주연 배우들의 인터뷰와 영화를 공개 재상영하는 행사가 열렸음. 이를 통해 Y 문화가 단순히 여성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남성 간 로맨스물 소비를 넘어 성 소수자에게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문화적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줌.

✔ 리액션 영상을 통한 소통과 공감

- Y 시리즈의 인기와 더불어 리액션 영상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태국의 대표적인 채널로는 제임스 판나팻이 만든 '낭나롱'이 있으며, 약 98 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로 주로 리액션 영상을 올리며 Y 시리즈 팬덤과 소통함.
- 이들은 배우들이 우는 장면에서 함께 울고, 웃는 장면에서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각 장면에서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꼬집어내어 말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리액션 영상을 보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느낌을 받게 됨. 이는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단절된 상황에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며 인기 콘텐츠로 성장했음.



[그림 24] 낭나롱 리액션 영상



[그림 25] 낭나롱 카니발 팬미팅 2020

- 제임스와 멤버들은 2020 년 12 월 '낭나롱 카니발 팬미팅'을 주최했는데, 이 행사에는 수많은 '쿠쥘'들이 참가해 낭나롱 멤버들과 함께 공연하며 Y 소녀(싸우와이)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

짐. 마치 아이돌 스타의 콘서트를 방불케 한 행사는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며 ‘쿠찐’들과 팬덤들 사이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제공함.

2. 태국의 소프트파워로 부상

✔ ‘쿠찐’의 발자취 투어 상품 출시

- 태국 관광청은 일본 내 태국 Y 시리즈의 인기에 주목하여 22년 6월 중순에는 시범상품으로 ‘뮤-겔프 쿠찐의 발자취 투어’를 선보였음. 이 투어에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이 참여했는데, 10명 중 8명은 “태국에 가 본 적이 없었지만 Y 시리즈가 태국에 가고 싶게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함.¹⁵⁾
- 현재는 코로나의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해외 관광이 다소 위축돼 있지만,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시 Y 연계 관광상품 또한 해외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 예상됨.



[그림 26] 태국 관광청의 ‘쿠찐 발자취 투어’ 시범관광 관련 기사

- 이러한 Y 투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태국 소프트파워의 주력 분야인 5F, 즉 음식(Food), 영화(Film), 패션(Fashion), 무에타이(Fighting), 축제(Festival)와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도 커 보임.

✔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

- 태국의 Y 장르는 대체로 웹소설에서 발생해 IP의 영상화(TV 드라마/영화)와 웹툰 제작의 단계를 거침. 이후 뮤직비디오, 콘서트, 광고 및 행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현재 Y 장르와 게임과의 연계성은 낮아 보이는데, <KinnPorsche The Series>와 같은 작품은 범죄 액션 드라마의 특성상 게임으로 출시되어도 시장성이 클 것이라 예상됨. 아울러 기타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 기대됨.

15)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1011267>

3. 한국과의 협업과 교류에 대한 기대

✓ 새로운 아이돌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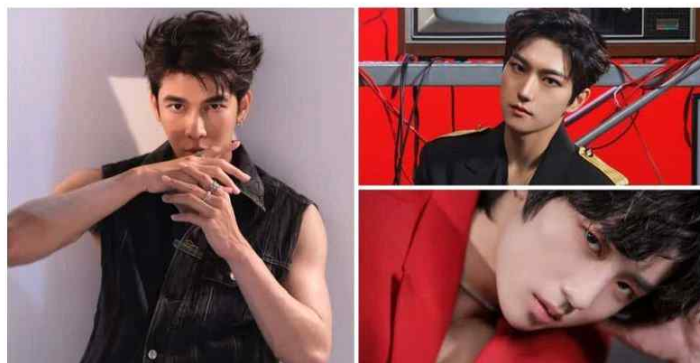
- 태국 내 Y 장르는 이미 주류 아이돌 시장으로 성장했음. 미남 배우들의 설렘 연기는 태국인에게 모국어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입과 공감에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외국인 아이돌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어줌. 동시에 해외에서의 태국 Y 시리즈의 인기는 Y 소녀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이 되기 때문에 Y 스타 아이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됨.
- 국내에서는 BL 장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왓차의 <시맨틱 에러>(2022)는 8주 연속 1위의 기염을 토하며 8월 말 영화개봉도 앞둔 상태임. 한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BL 시장에서는 태국과의 콜라보도 시작되었으며, 태국의 대표 Y 스타 뮤 수파싯과 K 팝 아이돌 그룹 Just B 멤버들이 주연을 맡은 <사랑은 고양이처럼>이 내년에 방영될 예정임.

‘Love Is Like A Cat’: Thai star Mew Suppasit returns to BL drama with K-pop group Just B

Just B's JM and Geonu become the next K-pop idols to star in a BL (boy love) K-drama following B1A4's Gongchan, B.A.P's Youngjae, Omega X, and more

By Lopa K

Updated On : 23:18 PST, Jun 29, 2022



Mew, Just B's JM and Geonu have been cast in the Thai-Korean drama 'Love Is Like A Cat' (@Msuppasitstudio, @JUSTB_Official/Twitter)

[그림 27] 한테 협력 BL 드라마 <사랑은 고양이처럼> 관련 기사

- 최근 세계적으로 젠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문화적 트렌드 속에서 태국의 Y 시리즈와 한국의 BL 산업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 Y 콘텐츠산업의 교류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출처

- 그림1: <https://novel.dek-d.com/>
 그림2: <https://www.imdb.com/title/tt8146166/>
 그림3: <http://lovesicktheseries.weebly.com/synopses.html>
 그림4: <https://www.youtube.com/watch?v=jcACij5a9So&list=PLMcISFepDTsGw1Cq9WTOF8NOz2gesu25n&index=7>
 그림5: <https://www.mebmarket.com/ebook-67674-Sotus-S>
 그림6: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801188376838227&set=pb.100063489229134.-2207520000>
 그림7: <https://www.prachachat.net/ict/news-536313>
 그림8: https://blog.naver.com/number1_number1/222247898050
 그림9: I Told Sunset About You 인트로 화면 캡처
 그림10: I Told Sunset About You 5화 중 part2 소개 화면 캡처
 그림11: <https://www.iq.com/?lang=ko>
 그림12: <https://www.dailynews.co.th/news/1285932/>
 그림13: <https://www.thebangkokinsight.com/news/lifestyle/entertainment/527842/>
 그림14: <https://www.thebangkokinsight.com/news/lifestyle/entertainment/527842/>
 그림15: <https://www.youtube.com/watch?v=V9twG9T5cS0>
 그림16: <https://www.youtube.com/watch?v=rYoay4Mp7j4&t=1s>
 그림17: <https://www.youtube.com/watch?v=XrEiimmjszM>
 그림18: <https://sudsapda.com/issue/288490.html>
 그림19: <https://www.komchadluek.net/entertainment/521884>
 그림20: <https://series.naver.com/comic/detail.series?productNo=6015663>
 그림21: <https://www.thairath.co.th/entertain/news/1130820>
 그림22: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905566>
 그림23: <https://www.tnnthailand.com/news/trueinside/69536/>
 그림24: <https://www.youtube.com/watch?v=oaFd49Bm9A0&t=2060s>
 그림25: <https://www.eventpop.me/>
 그림26: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1011267>
 그림27: <https://meaww.com/love-is-like-a-cat-thai-mew-suppasit-thamtype-bl-drama-k-pop-just-b-jm-geonu-fan-reaction>

참고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EC%95%BC%EC%98%A4%EC%9D%B4>
 위키피디아 Love Sick: The Series 영어 및 태국어 버전
<https://www.bbc.com/thai/features-52240707>
<https://www.dailynews.co.th/news/1285932/>
<https://www.youtube.com/watch?v=sSHbLetPQ0o&t=1s>
<https://today.line.me/th/v2/article/EOMDev>
https://www.youtube.com/watch?v=Lxp6UC_J-HM&t=342s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1011267>
<https://www.thebangkokinsight.com/news/lifestyle/entertainment/527842/>

태국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박웅진 부장

+66-2-017-2856

wjpark@kocca.kr

태국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06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박웅진 (태국 마케터)

집필자 이채문 (한국외대 태국어과 강사, 한국태국학회 총무이사)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2년 8월 12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